

치 사

겨울의 문턱에서 훈훈한 공덕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하고 제2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성원해주시는 가족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93년에 창단하여 연 20여회의 다양한 국내외 연주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감동으로 회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음의 나눔을 통해 이제는 국내 정상급 예술단체로 발돋움하여, 우수한 평가 속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감화의 너비를 더욱 넓혀 세계적인 불교 칸타타로 알려져 있는 ‘부모은중송’을 어린이와 성인 합창으로 구성하여, 보다 섬세하고 맑은 음색으로 음악적인 신선함과 신앙적인 숭고함을 친숙하게 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극한 효심이야 말로 대자대비한 보살의 정신이라는 불교의 효사상을 아름답게 전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의 삶은 번뇌와 고통에 신음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삶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남의 고통까지 더욱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침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이는 바로 ‘연기’의 원리이며, ‘자비’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대승본생 심지관경'에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태산과 같

고,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가 바다 속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자은(慈恩)이라고 하며 어머니 은혜를 비은(悲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서 '자(慈)'를 어머니의 은혜에서 '비(悲)'를 가져와 '자비'라는 불교의 기본사상이 연관되듯이 불교는 효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불교의 효사상을 되새기고 가정을 돌아보는 훈훈한 자리를 만들고, 오랜동안 합창단을 이끌어 주신 이사장 초격스님과 황학현 단장님,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 단원,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 행사를 함께 이끌어주신 서울 경기남합창단연합회와 박용란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가피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